

Charles Colson, the founder of Prison Fellowship, had been conducting a seminar in the Indiana State Prison in the USA where just weeks before a man had been executed in the electric chair. After Colson had finished, one of the volunteers who had entered the prison with him lingered to talk with a man from death row. The condemned prisoner was James Brewer who, Colson knew, had recently become a believer. A plane was waiting to take Colson back to Indianapolis, where in two hours he was to have a meeting with the governor. So Colson pressed the volunteer to hurry, "Time's up – we must get going". "Please, please", the volunteer replied, "this is very important. You see, I am Judge Clement. I sentenced this man to die. But now he is born again. He is my brother in Christ, and we want a minute to pray together". Colson tells how he stood frozen on the spot, looking at that scene. Here were two men – one black, one white, one powerless, one powerful, one condemned to die, the other the judge who had pronounced that sentence. Yet here they stood grasping a Bible together, united as one Christian brother with another. Is there anything greater than that? Is any force in the world more powerful?

교도소 선교회의 설립자인 찰스 콜슨은 미국 인디애나 연방 교도소에서 한 남자가 전기 의자에서 사형을 당하기 바로 몇 주 전에 세미나를 열고 있었습니다. 콜슨이 마쳤을 때, 그와 함께 감옥에 갇던 자원자 중 한명이 사형자 수감소의 한 남성과 이야기하기 위해 더 오래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콜슨은 그 사형수는 제임스 브루어로 최근에 믿음을 갖게 된 자임을 알았습니다. 두 시간 후 주지사와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인디애나폴리스로 콜슨을 데려가기 위한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콜슨은 그 자원자에게 서두르도록 다그쳤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 – 우리는 떠나야만 해". 그 자원자는 "제발, 제발요. 이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클레멘트 판사입니다. 내가 이 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의 나의 형제이며, 우리는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콜슨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그 자리에 얼어 붙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 한 사람은 흑인, 한 사람은 백인, 한 사람은 무력하고, 한 사람은 힘이 있으며, 한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이는 그 형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크리스천 형제로 결속하며, 성경을 함께 붙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 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 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을까요?

This story is a stark contrast to the theme of the book of Obadiah, the shortest book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only prophetic book addressed to a foreign nation, the nation of Edom (also known as "Teman"). Yahweh, the Sovereign Lord, the Lord of the nations rallies them for battle against Edom (v.1). The specific sin of Edom was a severe lack of brotherhood which grew out of Edom's pride. It is characteristic of the Hebrew prophets that when they speak against a person or a nation, foretelling an imminent judgment by God, they do so in a judicial framework – that is, they make their accusation, then go about proving its validity. The prophet Obadiah, whose name means "servant of God", makes his accusation in vv.1-9 ("the Sovereign Lord says" (v.1), "declares the Lord" (v.4) and "declares the Lord" (v.8)) and then in vv.10-14 shows why that accusation is valid and why the judgment of God must come. Finally, in vv.15-21, the prophet declares God's judgment: "The day of the Lord is near for all nations. As you have done, it will be done to you; your deeds will return upon your own head" (v.15). Obadiah's emphasis in relation to the Day of the Lord is that in the ultimate working of God's plan the ungodly (both nations and individuals) are going to be punished while those who are his people will be lifted up and blessed in Jesus Christ – theirs will be comfort, strength and security. They will not be disappointed.

이 이야기는 구약 중 가장 짧고, 에돔 (데만이라고도 알려진) 이라는 이방 국가에게 쓰여진 유일한 예언서인 오바다서의 주제와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열방의 주, 전능하신 주이신 여호와께서는 에돔과의 전투를 위해 그들을 규합하십니다 (1 절). 에돔의 구체적인 죄는 에돔의 교만에서 비롯한 형제애의 심각한 결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며 사람, 또는 국가를 반박할 때, 이를 사법적 틀 안에서 하는 것은 히브리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 즉, 혐의를 제기하고, 그런 후 이것의 유효함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의 선지자 오바다는 1-9 절에서 그의 혐의를 제시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1 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4 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8 절)), 그리고 10-14 절에 왜 이 혐의가 타당한 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5-21 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15 절).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관련하여 오바다가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올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될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국가들과 개개인들 모두)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 위안, 힘과 안전함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The important background to Obadiah is found in Genesis at the beginning of the Bible. Isaac's wife, Rebekah, is told that of the twins jostling in her womb,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Genesis 25:23). The older or firstborn is Esau and the younger is Jacob. But the second-born desperately wanted to be the first-born. He knew he needed to get the birthright from his brother and father in order to have the family blessing. Jacob took advantage of Esau's impetuosity by convincing him to swear an oath transferring his birthright to Jacob, in exchange for a meal of lentil stew (Genesis 25:29-34). Then, with the help of his mother, Jacob deceived his father, Isaac, into granting him the blessing intended for Esau, the first-born son (Genesis 27:27-30, 37-41). Jacob thus deceived Esau twice. Esau, we are told, held a grudge. Obadiah then tells us that there was a third deception when Esau's descendants, the Edomites, were deceived. And they were self-deceived by their own pride (v.3).

오바다서에 대한 중요한 배경은 성경의 처음 부분인 창세기에 보여줍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그녀의 태중에 서로 마구 밀치고 있는 쌍둥이에 대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 25:23)라고 듣게 됩니다. 큰 자 또는 첫째는 에서이며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필사적으로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축복을 얻기 위해선 그의 형과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팔축을 주고, 그의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넘기는 맹세를 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에서의 성급함을 이용했습니다(창 25:29-34). 그리고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도움을 얻어 장자인 에서에게 예정된 축복을 자신에게 허락하도록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창 27:27-30,37-41). 이와 같이 야곱은 에서를 두 번 속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 에서는 원한을 품었습니다. 오바다는 우리에게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사람들이 속게 되었을 때, 이것이 세번째 속임이었다라고 말합니다(3 절).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에 의해 스스로 속게 되었습니다.

Pride is deceitful and leads us to trust in anything apart from God. Edom's pride was shown in her misplaced confidence. First, Edom was proud of her almost impregnable defences due to her unique geographical situation high "in the clefts of the rocks" (V.3). From a human perspective it is hard to imagine a safer spot than Edom and its capital city of Petra. Secondly, Edom was proud of her allies – of the friendly nations with whom she had alliances – but who will deceive her (v.7). Thirdly, Edom was proud of and trusted in the advice of her wise men of understanding (v.8). And finally she was proud of and trusted in her military might. But all these would be of no avail. Obadiah prophesies that Edom will be made small and be utterly despised (v.2), brought down (v.4), totally ransacked and pillaged (v.6), destroyed (v.8) and slaughtered (v.9).

교만은 기만적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제한 다른 것을 믿도록합니다. 에돔의 교만은 부적절한 자신감에서 보여졌습니다. 먼저, 에돔은 "바위 틈"(3 절)과 높은 곳에 거주하는 그들의 특별한 지리적 상황에 기인한, 거의 철벽같은 방어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에돔과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보다 더 안전한 곳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둘째로, 에돔은 자신들의 연합국에 대해 -동맹을 맺었던 우호적인 국가들이었으나 에돔을 기만할- 의기 양양해 했습니다(7 절). 셋째로, 에돔은 그들의 지혜 있는 자들을 믿고 자신하였습니다(8 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돔은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바다는 에돔이 작게 되고, 크게 멸시받고(2 절), 끌어내려지며(4 절), 완전히 수탈되고 빼앗길 것이며(6 절), 멸망하게 (8 절), 멸절될 것임을(9 절) 예언합니다.

As with Edom, pride so deceives us that it leads us to place our confidence elsewhere than in God himself. The spirit of Edom is the spirit of self-sufficiency. How often have you found yourself trying to resolve the issue or difficulty that confronts you through your own efforts and resources rather than bringing that matter to the Lord in prayer – to the throne of grace, where you are assured that you will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you in (your) time of need" (Hebrews 4:16)? That is the spirit of self-sufficiency!

에돔과 같이, 교만은 우리를 속여 우리의 확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이르게 합니다. 에돔의 정신은 자만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또는 어려움에 있어, 이를 기도로 하나님께 – 우리에게 "공휟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히 4:16)가 보장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 보다,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이것이 자만심의 정신입니다!

God declares in his Word that the one he esteems is humble and contrite and trembles at his word (Isaiah 66:2). He hates every trace of human pride: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This is a hard lesson to learn but it must be learned nonetheless – pride is our enemy and humility is our friend. All that humbles us, whether it be lack of recognition, sickness, failure, disappointment, financial hardship and so on, is good for us.

하나님은 성경에, 그가 중히 여기는 자는 겸손하고, 깊이 뉘우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 66:2). 그는 인간적인 교만의 모든 흔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습득하기에 어려운 교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배워야 합니다 – 교만은 우리의 적이며 겸손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인정의 결여, 아픔, 실패, 실망,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우리를 겸손케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선합니다.

Edom's pride drove her to ongoing resentment against her national brother Jacob. In 587- 586 BC, Babylon overthrew Jerusalem and subdued Judah, the descendants of Jacob, and exiled the best of the Judean community. Edom's response was to stand aloof (v.11). Indeed, according to Obadiah (vv.11-14), the Edomites first stood by and then later participated in Judah's misfortune both by raiding the city and by catching some of the escaping people and turning them over to their enemies. Notice the repetition of the phrase "in the day" in verses 12-14. First in v.12, in the day of Judah's misfortune, you looked down on your brother. Then again in v.12, in the day of their destruction, you rejoiced over Judah. In v.13, in the day of their disaster, you marched through the gates of Jerusalem, then in the day of their disaster, you also looked down on them and finally in the day of their disaster, you seized their wealth. And in v.14, in the day of their trouble, you cut down their fugitives and handed over their survivors.

에돔의 교만은 그들이 형제 야곱의 국가에 대해 계속되는 분개를 갖도록 했습니다. 기원전 587-586 년, 바빌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야곱의 후손들인 유다를 진압했으며, 유다 공동체의 상류계층을 유배했습니다. 에돔의 반응은 초연했습니다(11 절). 사실은, 오바다서 (11-14 절)에 의하면, 에돔 사람들은 처음에는 방관했으며, 나중에는 성을 습격하고, 도망치는 일부 사람들을 잡아 그들을 적에게 다시 넘겨줌으로서 유다의 재앙에 가담했습니다. 12-14 절에서 "그 날에"라는 구절이 반복됨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12 절에서, 유다의 재앙의 날에, 너는 너의 형제를 업신여겼음이라. 그리고 다시 12 절에서, 유다 자손의 패망의 날에, 너는 기뻐하였음이라. 13 절에서,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는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갔으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또한 그 고난을 방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댔음이라. 그리고 14 절에, 고난의 날에, 너는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서고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겼음이라.

The particular horror of Edom's actions is that they were performed against those who were related to them in a special way. Edom and Judah, having descended from the twin sons of Isaac, Esau and Jacob, were brother nations. Mistreatment of one by the other was particularly atrocious because of this relationship. The prophecy of Obadiah says in v. 10, "Because of the violence against your brother Jacob, you will be covered with shame; you will be destroyed forever" (v.10). How do we describe this sin of Edom? It is unbrotherliness. In our Western culture we may not have a high regard for brothers or sisters, husbands or wives, parents or children, but God does have this high regard for family relations, and the Bible everywhere speaks of them. For example, even in such a practical matter as making financial provision for our relatives, remember what we read in 1 Timothy 5:8 last year: "If anyone does not provide for his relatives, and especially for his immediate family, he has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unbeliever". Those are strong words, but they are not too strong. God has put us in families, and God holds these relationships sacred.

에돔의 행위에서 특별히 경악스러운 것은 이것이 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사와 야곱의 자손들인 에돔과 유다는 형제 국가였습니다. 하나에 의한 다른 하나의 홀대는 이 관계 때문에 특히나 끔찍했습니다. 10 절에서 오바다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예언합니다(10 절). 우리는 어떻게 에돔의 이 죄악을 설명할까요? 이는 형제답지 않음입니다. 서양 문화에서 형제 또는 자매, 남편 또는 아내, 부모 또는 자식에 대한 깊은 존경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족 관계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있으시며, 성경 어디나 이에 대해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우리의 친척들에게 재정적인 보조를 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사안에 있어, 작년에 디모데전서 5:8 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를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는 강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심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고, 그는 이 관계를 존중하십니다.

What does unbrotherliness mean? It means acting toward my brother, or any other family member, in a way I should not act. To laugh at my brother when he makes a mistake is unbrotherly. To take delight in his failures is unbrotherly. To rejoice in his misfortune is unbrotherliness of the worst sort. In Obadiah we see a debilitating growth of sin – first in a progression from the general sin of pride to the specific sin of unbrotherliness. Second, we have it in the growth of unbrotherliness itself. In Obadiah 11-14 we find an intensification of this offence from mild beginnings to some horrible effects. The prophet mentions 7 things. First, there is the sin of standing aloof when our brother stumbles (v.11). It is interesting that this failure on the part of Edom stands first in the list of sin's progression, for it takes us back to the first form of unbrotherly conduct in the Bible. After Cain had lured his brother Abel into the fields to kill him, God came demanding, "Where is your brother Abel?" Cain tried to stand aloof saying, "Am I my brother's keeper?" (Genesis 4:9). This is what Edom was doing. Jerusalem was threatened by enemies, and the people of Edom said, "This is no business of ours. We're not their keepers. Whatever happens, happens; if they fall, it's only what serves them right. We're going to mind our own business". Were the people of Edom right in saying we are not our brothers' keepers? No. You and I have a responsibility to other men and women and a special responsibility to those within our immediate families and to those in the family of Go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God holds you accountable! Where you can help, you must help. Where you can encourage, you must encourage. Where you can defend, you must defend.

형제답지 않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형제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해서는 안되는 방식으로 행동함을 의미합니다. 형제가 실수를 했을 때에 이를 비웃는 것은 형제다움이 아닙니다. 형제의 패망을 즐거워 하는 것은 형제다움이 아닙니다. 그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은 가장 나쁜 유형의 형제답지 않음입니다. 오바다서에서 우리는 먼저, 일반적인 교만의 죄에서 형제답지 않음의 특정한 죄로 가는 과정에서, 점점 심신을 악화시키는 죄의 증식을 봅니다. 둘째로, 이는 형제답지 않음 그 자체가 커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바다서 11-14 절에서, 우리는 가벼운 시작에서 어떤 끔찍한 결과로 이러한 범죄가 심화됨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7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형제가 비틀거릴 때, 이를 방관한 죄입니다(11 절). 에돔이 만든 이 패망이 죄의 진행 목록의 첫번째 임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에게 성경속의 첫번째 형태의 형제답지 않은 행동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죽이기 위해 들로 유인한 후,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있느냐?" 가인은 냉담하고자 노력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창 4:9). 이것이 에돔이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적들에게 위협받고, 에돔 사람들은 "이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들을 지키는 자가 아니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있어; 만일 그들이 패망한다면, 이는 그저 그들의 인과응보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나 신경쓸꺼야"라고 말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자신들은 형제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의 직계 가족들과 하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것에, 여러분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격려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은 격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옹호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은 지키셔야합니다.

This first offence, bad as it is, soon led to a second one. The people of Edom looked down on the people of Judah, they gloated over their misfortune. They considered themselves stronger and wiser than the Jews, and gloated over the gory details of their rival city's fall. Regrettably there are Christians today who can act like that looking down on other Christians who have fallen into some sin and enjoying all the juicy details. Surely our duty to other believers is to build them up (Ephesians 5:12) and to restore them if they have sinned and we come to know about it (Galatians 6:1). The third stage of this unfortunate growth of unbrotherliness is to rejoice over the misfortune of the other. This progression is easy to understand, for whenever there is hostility between two brothers, or nations, or churches, whatever it maybe, and the one sees the other in misfortune, the natural thing is to be happy about it. You ask, "Do Christians do that today?" Certainly they do! Christians talk about other Christians and can even be happy that the other one has sinned. Somehow it makes them appear better. The fourth state is boasting – "You should not.....boast so much in the day of their trouble" (v.12). This grows from pride and is closely related to rejoicing over another's misfortune. We rejoice because we consider ourselves better. If we saw ourselves on the same level as others, we

would mourn with them and turn to God in humble thanksgiving that we have been spared, though our sins are also many.

이 첫번째 범죄는 곧 이것 만큼 형편없는 두번째 범죄를 야기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유다 자손을 방관하였고, 그들의 재앙을 고소해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 보다 강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의 경쟁 도시의 몰락에 대한 참혹한 장면에 즐거워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죄를 진 다른 크리스천을 업신여기고 모든 흥미진진한 모습을 즐기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다른 믿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분명히, 그들을 세우고(엡 5:12), 만일 그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갈 6:1). 이 달갑지 않은, 형제답지 않음의 증식의 세번째 단계는 다른 이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진행 과정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두 형제, 두 국가 또는 두 교회 사이에 적대심이 존재할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가 불행에 처한 다른 하나를 보고, 이에 대해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크리스천이 그렇게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럼요,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크리스천은 다른 크리스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이가 죄를 지었음을 심지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까닭인지 이는 그들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네번째 상태는 과시함입니다 –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12 절). 이는 교만에서 자라나고 다른 이의 불행을 기뻐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른 이들과 같은 수준에서 보았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슬퍼했을 것이고, 우리의 죄 또한 많음에도, 모면하게 되었다는 겸손한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Up to this point, all steps in this terrible growth of unbrotherliness have been attitudes, or at least actions of a negative sort. This particular sin cannot be confined to attitudes, however. What we think inevitably leads to actions, and this is exactly what we find in the fifth, sixth and seventh items mentioned by Obadiah. What are these items? The fifth is that the Edomites marched “through the gates of my people in the day of their disaster” (v.13). The sixth is that they “seized their wealth” (v.13). The last involving 3 related actions is that they waited “at the crossroads to cut down their fugitives (and) hand over their survivors in the day of their trouble” (v.14). This last verse says that the Edomites actually caught Jews who were escaping from Jerusalem, rounded them up, and then delivered them back into the hands of their enemies. This is the ultimate growth of their sin. It sounds terrible and it is. But that is the fate of many who come to a saving faith in Christ in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Iraq, Afghanistan, Syria, Pakistan, Somalia, Sudan, Iran, Libya, Nigeria, Yemen, Saudi Arabia, India and Uzbekistan. They are betrayed by family members and close friends and handed over to their persecutors. Betrayed like their Lord and Saviour who was handed over by a trusted disciple.

여기까지, 형제답지 않음의 이 끔찍한 증식의 모든 단계에는 정신적 태도, 또는 최소한 부정적인 유형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한 죄악은 정신적 태도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행동을 야기하고, 이는 정확하게 오바다가 언급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의 사항들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다섯째는 에돔 사람들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13 절). 여섯째는 그들이 “재물에 손을 대었음”입니다(13 절). 마지막으로 관련된 3 가지 연계된 행동들은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겼음”입니다(14 절). 이 마지막 구절은 에돔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잡고, 그들을 모아서, 원수의 손에 다시 넘겼음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궁극적인 증식입니다. 이는 끔찍하게 들리며,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수단,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와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갖는 많은 이들의 숙명입니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들,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의 박해자들에게 넘겨집니다. 믿었던 사도에 의해 넘겨졌던 그들의 구주처럼 배신당합니다.

Jesus Christ came into the world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Mark 10:45). He put aside all sense of serving himself and came and “made himself nothing” for us, humbling himself even to death on a cross (Philippians 2:6- 8). “What can I do that will be the greatest possible benefit to my brothers?” he asked and willingly gave his life to take the punishment for their sin. He is the model man, the antithesis of Edom. Edom ignored his brother, but Christ is his brother's keeper.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자”(막 10:45)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모든 의미를 제쳐두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셔”, 자신을 낮추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빌 2:6-8). “이것이 나의 형제에게 최고로 가능한 혜택이 될 것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물으셨고, 기꺼이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에돔과는 정반대인 귀감이 되는 자이십니다. 에돔은 그의 형제를 못 본 체했으나, 그리스도는 그의 형제를 지키는 자이십니다.

The enemy within us all is pride. Jack Lang, a former premier of New South Wales, said: “Always back the horse called self-interest, because you know it’s the only one trying”. The enemy within must be continually fought and defeated. Peter wrote in his first letter, “All of you,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because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Be self-controlled and alert.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R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ith, because you know that your brothers throughout the world are undergoing the same kind of sufferings” (1 Peter 5:5-9).

우리 모두 안의 적은 교만입니다. 뉴사우스웨일주 전 주 총리인 잭 랭은 “항상 사리사욕이라고 불리는 것을 지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단 하나임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적은 끊임없이 대적되고 물리쳐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번째 편지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영령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현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벧전 5:5-9).

The spirit of Edom is the spirit showing itself in self-sufficiency, indifference and gloating. Only the cross of Jesus embraced by faith rids us of such deceptively blinding pride.

에돔의 정신은 자만심, 무관심과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는 데서 보여지는 정신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현혹될 정도로 맹목적인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믿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My richest gain I count but loss,  
And pour contempt on all my pride.

Forbid it Lord that I should boast,  
Save in the death of Christ my God.....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